

오스트리아의 농업 및 농업정책 *

이 현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1. 서론

1.1. 오스트리아 국가 개요¹⁾

18세기 초 유럽의 열강이었던 오스트리아는 역사적 부침을 거듭하였는데 헝가리와 타협하여 이중제국(1862-1918)을 수립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늘날의 영토로 축소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에 병합(1938년)된 이후 1955년에는 중립체제를 전제조건으로 독립주권을 회복하였다. 이에 따라 신생 오스트리아 공화국은 군비(軍備) 제한 및 독일과의 정치적·경제적 결합금지의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국제연합 가입이 허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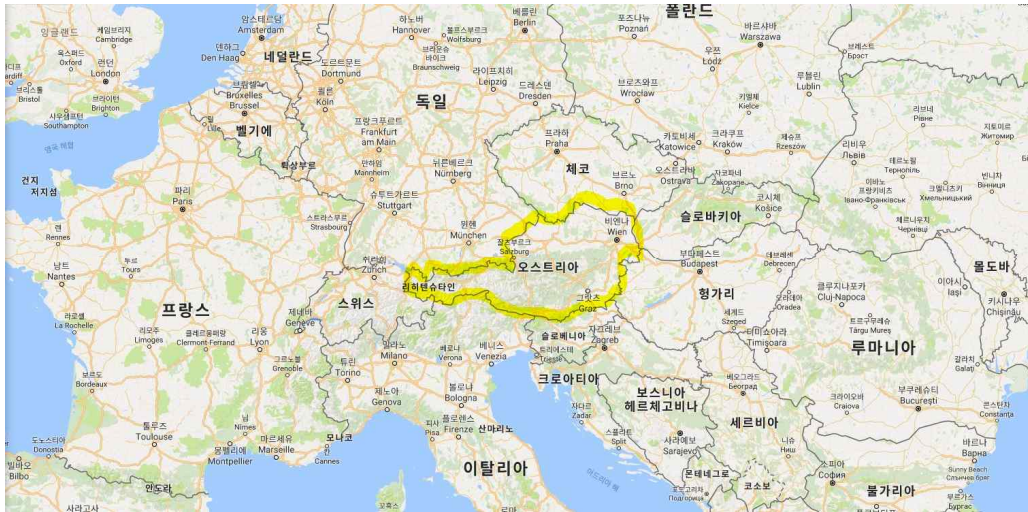
오스트리아는 유럽 대륙의 중앙에 있는 국가로 북쪽으로는 독일과 체코, 동쪽으로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서쪽으로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접한다. 국토 면적은 8만 3,879km²로 우리나라의 83.6%에 해당하지만, 농지 면적(2만 7,142km²)은 우리나라의 1.6배에 이른다. 오스트리아 국토의 2/3가 동알프스의 산지이며, 도나우강과 그 지류인 인강, 무르강과 드라바강 등이 동서로 흐르

* (hkleee@krei.re.kr, 061-820-2344).

1) 본 절은 두산백과, CIA의 The World Factbook과 World Bank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면서 형성된 골짜기가 산지를 삼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동쪽의 대륙성 기후, 서쪽의 해양성 기후가 존재하는 두 기후의 점이지대(漸移地帶)이다.

그림 1. 오스트리아 지도



자료: 구글지도(<http://www.google.co.kr/maps>).

오스트리아의 토지 면적은 국토 면적의 98.4%인 8만 2,523km²이며, 전술한 것처럼 오스트리아는 동알프스 산지가 위치하기 때문에 토지 면적의 46.9%인 3만 8,690km²가 삼림지역이다. 농지 면적은 토지 면적의 32.9%인 2만 7,142km², 경지 면적은 16.4%인 1만 3,517km²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인다.²⁾

2016년 오스트리아의 GDP는 4,173억 달러(2010년 불변가격 기준, 세계 28위)로 우리나라(1조 3,047억 달러, 세계 14위)의 32% 수준이지만, 1인당 GDP는 4만 7,704달러로 우리나라(2만 5,459달러)보다 1.9배 높다. 농업 GDP는 55억 3,966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22.5%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1.3%)도 우리나라(1.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0년도 오스트리아의 농가당 GDP(2만 4,281달러)는 전체 1인당 GDP의 57.9%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전체 1인당 GDP의 93.9% 수준(4만 4,737달러)으로 크게 증가했다.³⁾

오스트리아의 총인구와 농촌인구는 연평균 각각 0.5%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5년

2)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 면적 대비 농지 면적 비중은 17.9%이고, 경지 면적 비중은 15.1%를 차지함.
3) 우리나라의 농가당 GDP는 2000년 9,674달러에서 2015년 2만 6,775달러로 연평균 7.0% 증가함.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가당 GDP는 전체 1인당 GDP보다 1.1배 높고, 오스트리아의 농가당 GDP 대비 59.8% 수준에 해당함.

기준 총인구는 863만 명이고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294만 명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⁴⁾ 우리나라의 경우 총인구는 증가추세이지만 농촌인구는 감소추세이고, 농촌인구의 비중도 17.5%에 불과해 오스트리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1. 오스트리아의 주요 경제 및 농업 지표

(단위: km², \$, 천 명)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토 면적 (surface area)	83,879	83,879	83,879	83,879	83,879	83,879	83,879	83,879	83,879
토지 면적 (land area)	82,580	82,580	82,571	82,561	82,554	82,531	82,523	82,523	82,523
삼림 면적 (forest area)	38,380	38,510	38,600	38,618	38,636	38,654	38,672	38,690	-
농지 면적 (agricultural land)	29,402	28,568	27,792	27,573	27,352	27,164	27,142	-	-
경지 면적 (arable land)	13,990	13,807	13,638	13,596	13,551	13,539	13,517	-	-
총GDP(백만 \$)	336,023	365,926	390,212	401,169	404,161	404,663	407,272	411,195	417,283
1인당 GDP	41,942	44,474	46,657	47,806	47,943	47,723	47,681	47,630	47,704
농업 GDP(백만 \$)	4,832	4,867	4,982	5,725	5,269	5,142	5,259	5,279	5,540
농가당 GDP	24,281	28,463	34,599	41,185	39,323	40,175	42,754	44,737	-
총인구	8,012	8,228	8,363	8,392	8,430	8,479	8,542	8,633	-
농촌인구	2,740	2,812	2,856	2,865	2,878	2,893	2,911	2,938	-

주: GDP 관련 항목은 2010년 기준 불변가격을 나타냄.

자료: The World Bank Database.

1.2. 오스트리아의 농업 개요

오스트리아의 농업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품목도 다양하지 않아 주요 축산물과 곡물 산업 일부가 대부분이다. 곡물의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일정한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4년 곡물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각각 602만 2,449톤과 82만 7,685ha로 역대 최고치 수준을 회복했다. 재배면적과 생산 단수, 작물과 식품 생산지수도 마찬가지로 2011년과 2014년에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축산 생산지수는 2011년 이후 과거 평년 수준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서 정체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4) 오스트리아의 2015년 기준 총인구는 우리나라 인천·대구·부산의 인구를 합한 수치(880만 명, 2015년 기준)와 비슷하고, 농촌 인구는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농촌인구를 합한 수치(278만 명, 2015년 기준)와 비슷한 규모임.

표 2. 오스트리아의 주요 농업 생산 지표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작물 생산 지수	93.89	99.46	101.47	118.94	98.74	99.1	115.45
식품 생산 지수	98.16	100.32	104.68	109.6	101.25	101.9	108.71
축산 생산 지수	100.92	100.88	106.69	103.43	102.81	103.64	104.25
곡물 생산 단수(kg/ha)	5,541	6,346	6,429	7,288	6,256	6,099	7,276
곡물 생산량(천 톤)	4,722	5,195	5,338	6,027	5,201	4,898	6,022
곡물 재배 면적(천 ha)	852	819	830	827	831	803	828

주: 각 연도별 생산 지수는 2004~2006년 평균을 100으로 한 값을 나타냄.
 자료: The World Bank Database.

오스트리아의 농축산물 생산액은 축산물과 곡물이 상위 순위를 차지한다. 우유 생산액은 2000년대 중반에 주춤했으나 꾸준한 성장추세를 보여 2014년 10억 9,030만 달러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1%로 가장 크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생산액은 2010년도 이후 정체 또는 감소추세를 보이며, 비중은 각각 15.3%와 13.2%로 우유의 뒤를 잇고 있다.

곡물의 경우 옥수수와 밀의 생산액이 가장 높다. 2014년 기준 옥수수와 밀 생산액은 각각 3억 3,070만 달러와 2억 8,464만 달러로 2012년 이후 비교적 증가 추세이며, 전체 생산액 대비 비중은 각각 6.2%와 5.1%이다. 감자와 보리 생산액은 각각 1억 2,669만 달러(2.4%)와 1억 62만 달러(1.8%)로 2011년 이후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감자는 연평균 0.6% 증가하는데 그쳤고 보리는 오히려 0.1% 감소했다.

과일에서 사과와 체리 생산액은 2014년 각각 2억 3,697만 달러와 7,231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생산액 대비 비중은 각각 4.2%와 1.3%이다. 특히 체리는 연평균 4.7%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포도와 자두 생산액은 2014년 각각 1억 5,233만 달러와 4,148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외에 생산액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사탕무, 칠면조고기, 유채, 양파(건조), 라이밀과 대두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은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로 미미하지만, 2000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품목들이다. 특히 칠면조고기(1억 5,927만 달러) 생산액은 연평균 13.8%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두(3,239만 달러)와 라이밀(4,148만 달러) 생산액은 연평균 각각 9.6%와 5.9% 증가했다.

표 3. 오스트리아의 주요 농축산물 생산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최근 3개년 비중(%)	'00~'14년 CAGR(%)
우유	1,042	972	1,017	1,032	1,055	1,059	1,090	22.1	0.3
돼지고기(토종)	922	873	951	762	739	738	746	15.3	-1.5
쇠고기(토종)	581	615	626	647	625	644	639	13.2	0.7
옥수수	262	286	307	348	333	232	331	6.2	1.7
밀	207	229	239	281	201	252	285	5.1	2.3
사과	207	191	207	231	199	179	237	4.2	1.0
사탕무	110	133	135	149	134	149	183	3.2	3.7
칠면조고기(토종)	26	119	116	154	162	162	159	3.3	13.8
닭고기(토종)	119	118	149	159	152	153	155	3.2	1.9
포도	174	173	132	215	164	182	152	3.4	-0.9
감자	117	129	113	138	112	102	127	2.4	0.6
보리	102	105	93	102	79	87	101	1.8	-0.1
기타 곡물	60	80	87	89	91	91	93	1.9	3.2
계란	71	74	78	85	89	89	91	1.9	1.8
체리	38	33	66	90	49	61	72	1.3	4.7
유채	35	29	48	50	42	55	55	1.0	3.3
양과(건조)	20	22	32	42	28	30	43	0.7	5.6
자두	34	37	47	62	43	53	43	1.0	1.6
라이밀	18	27	32	31	30	31	41	0.7	5.9
대두	9	17	26	30	29	23	32	0.6	9.6

주: 각 연도별 생산액은 2004~2006년 기준 불변가격을 나타냄.
자료: FAOSTAT.

2. 오스트리아의 농축산물 생산 및 교역

2.1. 농산물 생산

오스트리아의 농산물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세계 곡물 수급동향과 유사하게 기후조건 등의 영향으로 증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 품목의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상기후를 보였던 2012년 이후 감소했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풍작 경향으로 대부분 품목의 생산량이 2011년 수준을 회복하거나 초과하는 등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품목별 생산량은 사탕무, 옥수수와 밀이 가장 많지만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4년 사탕무 생산량은 424만 4,219톤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3.7% 증가했지만,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012~2014년 평균)에 불과하다. 옥수수과 밀 생산량은 각각 233만 4,385톤과 180만 4,018톤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각각 1.7%와 2.3% 증가했으며, 비중은 각각 0.2%에 그친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와 포도 생산량이 제일 많은데, 2014년 생산량은 각각 56만 332톤과 26만 6,491톤을 기록했다. 사과의 경우 2011년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다가 2014년에 다시 최고 생산량을 기록했으나, 포도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연평균 0.9% 감소)를 보인다. 2014년 체리 생산량은 5만 6,883톤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4.7%씩 증가했고 세계 생산량 가운데 2.2%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4. 오스트리아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최근 3개년 대세계 비중(%)	'00~'14년 CAGR(%)
사탕무	2,560	3,084	3,132	3,456	3,114	3,466	4,244	1.4	3.7
옥수수	1,852	2,021	2,169	2,453	2,351	1,639	2,334	0.2	1.7
밀	1,313	1,453	1,518	1,782	1,275	1,598	1,804	0.2	2.3
보리	855	880	778	859	662	734	846	0.5	-0.1
감자	695	763	672	816	665	604	751	0.2	0.6
사과	490	453	489	547	471	424	560	0.6	1.0
라이밀	135	198	231	228	220	224	303	1.7	5.9
포도	304	302	232	375	287	319	266	0.4	-0.9
호밀	183	164	164	202	205	235	233	1.4	1.7
양파(건조)	96	103	154	200	135	144	206	0.2	5.6
유채씨	125	104	171	180	149	197	198	0.3	3.3
대두	33	61	95	109	104	83	118	0.0	9.6
당근·순무	60	79	86	109	98	96	107	0.3	4.2
귀리	118	128	98	110	94	87	106	0.4	-0.7
양배추	71	89	92	102	93	77	90	0.1	1.7
자두	57	62	78	103	72	89	72	0.7	1.6
해바라기씨	55	81	67	74	53	51	58	0.1	0.3
토마토	24	35	44	50	52	53	57	0.0	6.3
체리	30	26	52	71	39	48	57	2.2	4.7
배	130	118	121	89	71	67	51	0.3	-6.5

자료: FAOSTAT.

오스트리아의 농산물 가공품은 주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 농산물 생산량과 같이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극히 낮다. 유채유와 대두유 생산량은 연평균 각각 5.2%와 6.6% 증가했으나 나머지 품목의 증가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4년 품목별 생산량은 보리맥주가 92만 627톤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사탕무 원당 57만 6,000톤, 포도주 19만 9,869톤, 유채유와 당밀이 각각 15만 톤 순이다.

표 5. 오스트리아의 주요 농산물 가공품 생산량 추이

(단위: 톤)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최근 3개년 대세계 비중(%)	'00~'14년 CAGR(%)
보리맥주	877,137	907,622	874,803	896,544	893,153	906,966	920,627	0.5	0.3
원당	447,000	488,932	464,555	543,608	464,175	522,398	576,000	0.3	1.8
포도주	233,841	226,402	173,745	281,476	215,475	239,195	199,869	0.8	-1.1
유채유	73,500	101,449	155,518	137,007	129,531	144,385	150,217	0.6	5.2
당밀	89,580	107,807	105,264	113,000	104,137	119,046	146,290	0.2	3.6
마가린	43,500	50,586	60,611	61,367	63,030	63,600	74,748	0.5	3.9
해바라기씨유	52,900	36,978	38,751	44,552	47,910	44,604	48,751	0.3	-0.6
대두유	3,800	5,500	3,100	4,700	6,500	7,937	9,304	0.0	6.6
아마인유	107	2,056	2,114	2,120	2,936	659	780	0.2	15.2

자료: FAOSTAT.

2.2. 축산물 생산

오스트리아의 축산물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닭고기와 계란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가장 생산량이 많은 품목은 우유이며 2014년 생산량은 349만 3,861톤을 기록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생산량은 각각 52만 7,441톤과 22만 3,193톤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축산물 가공품은 단연 우유를 이용한 제품이 대부분이다. 2014년 탈지분유 생산량은 108만 6,520톤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고, 치즈는 21만 9,096톤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3.0%씩 증가했다. 크림 생산량은 7만 3,258톤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1.6% 증가했고,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표 6. 오스트리아의 주요 축산물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최근 3개년 대세계 비중(%)	'00~'14년 CAGR(%)
우유	3,340	3,114	3,258	3,307	3,382	3,393	3,494	0.54	0.3
돼지고기	502	509	546	544	530	529	527	0.47	0.4
쇠고기	203	204	227	222	222	229	223	0.35	0.7
닭고기	87	89	107	112	109	110	114	0.11	1.9
계란	86	89	95	103	107	107	110	0.16	1.8
칠면조고기	24	30	26	25	25	21	20	0.39	-1.1
염소우유	17	13	19	19	20	21	20	0.11	1.2
산양유	7	9	9	11	11	11	11	0.11	3.0
양고기	7.5	6.6	6.1	6.6	6.6	7.2	7.1	0.08	-0.4
천연꿀	8.7	6.1	4.7	6.0	5.0	5.0	3.9	0.29	-5.6
염소고기	0.8	0.7	0.6	0.7	0.8	0.7	0.7	0.01	-1.0
거위고기	0.2	0.3	0.4	0.3	0.4	0.4	0.4	0.01	6.9
토끼고기	1.0	0.6	0.3	0.3	0.3	0.3	0.3	0.02	-7.2
말고기	0.4	0.2	0.2	0.2	0.2	0.2	0.2	0.03	-4.7
오리고기	0.2	0.1	0.1	0.2	0.1	0.1	0.1	0.00	-3.1
양가죽	1.7	1.5	1.2	1.2	1.2	1.2	-	0.01	-100.0

자료: FAOSTAT.

표 7. 오스트리아의 주요 축산 가공품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최근 3개년 대세계 비중(%)	'00~'14년 CAGR(%)
탈지분유	1,050	944	1,004	1,022	1,051	1,087	1,087	0.86	0.2
치즈	145	184	191	193	206	208	219	-	3.0
크림	58	61	64	65	65	73	73	2.06	1.6
라드	66	68	68	68	68	68	69	1.14	0.3
버터	37	31	33	34	36	35	34	0.69	-0.6
유장	2	14	31	31	32	32	32	1.20	23.0
동물기름	35	25	25	25	19	21	21	0.30	-3.8
농축우유	14	12	11	12	11	11	11	1.19	-1.9
탈지분유(지방분 1.5% 미만)	13.3	7.5	6.8	5.8	5.0	4.3	4.3	0.13	-7.7
전지분유	3.1	7.5	3.0	3.0	3.0	3.0	3.0	0.08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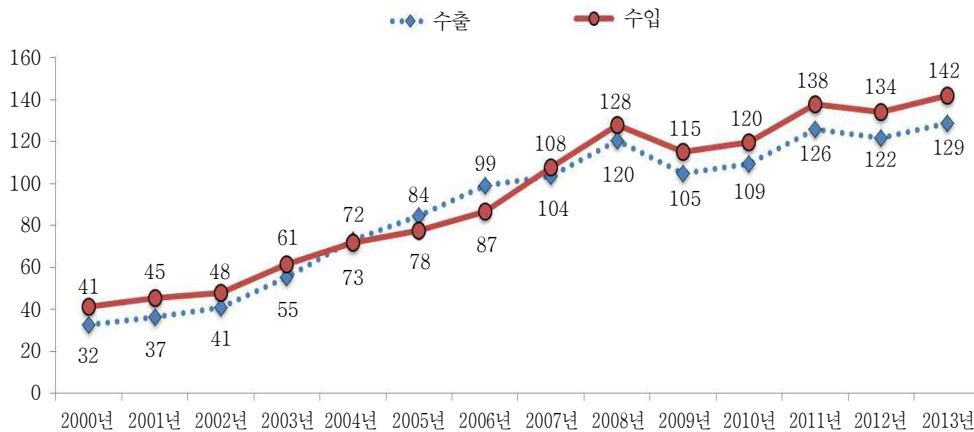
자료: FAOSTAT.

2.3. 농축산물 교역

2013년 오스트리아의 농축산물 교역액은 270억 6,415만 달러로 연평균 10.5%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액은 10억 달러 수준을 나타낸다.

그림 1. 오스트리아의 농축산물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FAOSTAT.

2.3.1. 오스트리아의 농축산물 수입

오스트리아의 농축산물 수입은 대부분 오스트리아 주변국가인 EU 역내국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3년 기준 농축산물 수입액 1억 달러 이상인 15개 국가에서 EU 역내국이 아닌 국가는 스위스, 터키와 세르비아의 3개 국가에 불과하다.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이 가장 큰 독일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2013년 57억 9,959만 달러로 평균 수입액 비중도 40.5%에 달한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각각 14억 9,460만 달러와 11억 714만 달러 순이다.

스위스, 체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20% 이상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스위스산은 2000년 8,376만 달러에서 2013년 10억 2,281만 달러, 체코산은 4,448만 달러에서 4억 4,248만 달러, 폴란드산은 3,740만 달러에서 4억 2,252만 달러, 슬로바키아산은 1,553만 달러에서 4억 1,492만 달러로 증가했다.

표 8. 오스트리아의 국가별 농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최근 3개년 대세계 비중(%)	'00~'13년 CAGR(%)
독일	1,815	3,469	4,933	5,626	5,361	5,800	40.5	9.3
이탈리아	477	817	1,260	1,450	1,433	1,495	10.6	9.2
네덜란드	404	669	1,319	1,348	1,115	1,107	8.6	8.1
스위스	84	230	889	929	975	1,023	7.1	21.2
헝가리	196	337	531	700	707	764	5.2	11.0
프랑스	218	342	306	412	409	454	3.1	5.8
체코	44	164	330	378	372	442	2.9	19.3
폴란드	37	117	268	380	525	423	3.2	20.5
슬로바키아	16	80	264	337	345	415	2.6	28.8
터키	136	332	410	384	377	357	2.7	7.7
스페인	119	195	251	273	294	332	2.2	8.2
벨기에	122	168	245	307	279	297	2.1	7.1
세르비아	0	0	121	163	129	170	1.1	16.0
영국	58	73	82	108	111	132	0.8	6.5
슬로베니아	11	62	98	141	117	100	0.9	18.6

주: 2013년 기준 국가별 수입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국가만 제시함.
자료: FAOSTAT.

오스트리아는 필요한 소비재 또는 원료 농산물을 주로 수입하며, 주요 농축산물 수입 규모는 품목별로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아 대부분 6% 미만의 비중을 보인다. 가장 수입액이 큰 품목은 조제식료품으로 2000년 1억 8,970만 달러에서 2013년 8억 3,952만 달러로 연평균 12.1% 증가했다. 독일산 조제식료품 수입액은 4억 8,718만 달러로 57.6%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스위스(7.5%)와 이탈리아(7.1%), 네덜란드(6.0%) 등의 순이다.

비(非)알콜음료는 같은 기간 3,207만 달러에서 7억 5,157만 달러로 연평균 27.5%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은 스위스(6억 969만 달러)가 전체의 8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00년 이후 연평균 57.5%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두 번째 수입국은 독일(8,807만 달러)이며 10.7%의 비중을 차지한다.

2013년 원료물질 수입액은 6억 5,581만 달러이며 네덜란드(41.2%)와 독일(31.3%)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목초 수입액은 5억 4,938만 달러로 독일(63.2%)산과 이탈리아(11.0%)산이 주로 수입된다.

축산물 중에는 독일산 치즈(3억 826만 달러, 60.3%), 돼지고기(2억 639만 달러, 84.6%)와 칠면조고기(1억 3,815만 달러, 63.6%) 등이 주로 수입된다. 독일산 치즈와 돼지고기 수입액은 연평균 각각 9.5%와 8.0%, 칠면조고기는 23.8%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곡물의 경우 옥수수는 헝가리산(6,983만 달러, 33.2%), 슬로바키아산(6,293만 달러, 19.5%), 독일산(5,889만 달러, 14.2%)과 체코산(3,996만 달러, 12.6%)이 주로 수입되며, 슬로바키아산과 체코산 수입액은 연평균 55%의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독일산 초콜릿(3억 4,409만 달러, 62.6%)과 애완동물용 식품(1억 7,034만 달러, 50.5%), 스위스(1억 1,415만 달러, 30.7%)·독일(8,995만 달러, 22.4%)·이탈리아(8,894만 달러, 22.4%)·슬로바키아(7,262만 달러, 22.5%)산 볶은 커피, 이탈리아(1억 2,06만 달러, 45.9%)·프랑스(6,269만 달러, 20.1%)·독일(5,476만 달러, 21.5%)산 포도주 수입이 증가했다.

표 9. 오스트리아의 주요 품목별 농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최근 3개년 대세계 비중(%)	'00~'13년 CAGR(%)
조제식료품	190	494	663	740	749	840	5.6	12.1
비알콜음료	32	128	702	726	783	752	5.5	27.5
원료(Crude materials)	286	466	613	703	664	656	4.9	6.6
목초	197	377	533	586	515	549	4.0	8.2
초콜릿제품	163	317	422	467	476	547	3.6	9.8
치즈(우유)	169	270	402	442	484	515	3.5	9.0
애완동물용 식품	72	131	166	199	262	398	2.1	14.1
볶은 커피	29	91	296	396	366	383	2.8	21.9
담배	27	64	461	463	461	316	3.0	20.7
옥수수	33	55	138	253	182	296	1.8	18.4
포도주	107	182	227	251	265	275	1.9	7.6
조제과일	80	151	242	288	267	273	2.0	9.9
대두박	98	121	177	194	223	264	1.6	7.9
돼지고기(pig)	93	115	171	191	263	262	1.7	8.3
소가죽	101	118	163	209	176	250	1.5	7.2
칠면조고기	44	96	165	204	194	204	1.5	12.5
소	26	60	128	145	160	174	1.2	15.7
밀	11	36	120	171	151	169	1.2	23.0
알콜음료	66	112	131	148	149	167	1.1	7.4
유채유	11	16	174	208	170	167	1.3	23.3

주: 2013년 기준 수입액 상위 20개 품목만 제시함.
자료: FAOSTAT.

2.3.2. 오스트리아의 농축산물 수출

오스트리아의 농축산물 수출은 수입과 마찬가지로 주변국가인 EU역내국으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3년 독일과 이탈리아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각각 41억 6,657만 달러와 16억 7,02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U 역내국 이외의 수출 대상국가로는 미국과 러시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와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이다. 2013년 대미국 수출액은 5억 8,915만 달러로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2000년 이후 연평균 20%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러시아(3억 2,349만 달러)와 우크라이나(1억 1,357만 달러)로의 수출액도 연평균 각각 18.7%와 23.8% 증가했다.

표 10. 오스트리아의 국가별 농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최근 3개년 대세계 비중(%)	'00~'13년 CAGR(%)
독일	1,176	2,481	3,590	4,106	3,994	4,167	32.6	10.2
이탈리아	658	1,267	1,477	1,653	1,630	1,670	13.2	7.4
미국	55	959	473	572	611	589	4.7	20.0
헝가리	60	206	486	611	497	528	4.4	18.2
스위스	134	242	374	472	452	507	3.8	10.8
슬로베니아	79	177	387	431	401	441	3.4	14.1
프랑스	98	225	278	324	326	363	2.7	10.6
네덜란드	93	233	301	336	324	357	2.7	10.9
체코	76	191	328	410	347	347	2.9	12.4
영국	155	232	392	370	339	343	2.8	6.3
러시아	35	140	242	294	253	323	2.3	18.7
폴란드	42	94	211	219	189	241	1.7	14.4
슬로바키아	29	75	218	236	236	225	1.9	17.1
스페인	46	178	205	213	201	195	1.6	11.8
벨기에	45	148	131	149	176	194	1.4	11.8
스웨덴	40	89	104	115	113	145	1.0	10.4
국명 미상	0	27	0	0	20	140	0.4	97.6
루마니아	31	144	185	177	151	136	1.2	12.2
크로아티아	49	122	128	138	118	120	1.0	7.1
우크라이나	7	36	54	81	84	114	0.7	23.8

주: 2013년 기준 국가별 수출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국가만 제시함.
자료: FAOSTAT.

오스트리아의 주요 수출 농축산물은 주요 수입품목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며, 순위의 변동만 나타난다. 2013년 오스트리아의 농축산물 수출액에서 비알콜음료의 수출액이 23억 7,157만 달러로 가장 많고, 평균 20.0%의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목에서 주요 수입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생산품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품목이 우유와 쇠고기이다. 2013년 우유 수출액은 3억 7,843만 달러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0.6%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이탈리아(1억 8,255만 달러)와 독일(1억 6,163만 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액의 47.4%와 41.8%를 차지한다. 2013년 쇠고기 수출액은 3억 1,200만 달러로 연평균 18.4%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독일(1억 5,262만 달러), 프랑스(3,367만 달러)와 이탈리아(2,984만 달러)가 주요 수출시장이다.

표 11. 오스트리아의 주요 품목별 농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최근 3개년 비중(%)	'00~'13년 CAGR(%)
비알콜음료	565	2,330	2,295	2,563	2,572	2,372	20.0	11.7
조제식료품	120	409	818	887	860	909	7.1	16.8
기타 초콜릿제품	164	346	446	463	421	508	3.7	9.1
치즈(우유)	129	282	404	447	417	447	3.5	10.0
목초	152	292	515	596	392	434	3.8	8.4
우유(신선)	102	132	288	356	332	378	2.8	10.6
애완동물용 음식	54	137	174	170	215	315	1.9	14.5
쇠고기(정육)	35	114	272	277	295	312	2.4	18.4
돼지고기 소시지	34	106	213	248	256	289	2.1	18.0
쇠고기	104	164	204	274	253	263	2.1	7.4
돼지고기(pork)	90	216	307	387	225	257	2.3	8.4
옥수수	38	101	111	183	226	249	1.8	15.7
웨이퍼	0	0	0.44	0.39	207	244	1.2	723.4
돼지고기(pig)	72	140	173	184	288	244	1.9	9.8
조제과일	75	154	216	239	232	234	1.9	9.1
음식쓰레기	27	68	0	169	186	213	1.5	17.1
밀	75	138	203	249	205	206	1.8	8.1
포도주	37	104	165	177	174	204	1.5	13.9
요구르트	22	153	210	199	186	192	1.5	18.0
원료 (Crude materials)	46	98	149	191	174	163	1.4	10.3

주: 2013년 기준 수입액 상위 20개 품목만 제시함.
자료: FAOSTAT.

3. 안·오스트리아 농축산물 교역 연왕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는 각자 양국의 수입(수출)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국가이다. 우리나라 무역통계를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 제28위의 수입대상국이자 제69위의 수출시장이고, FAO 무역통계를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제30위의 수입대상국이자 제57위의 수출시장이다.⁵⁾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간의 농축산물 교역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농축산물 교역액은 지난 10년 동안 6,725만 달러에서 1억 2,007만 달러로 연평균 6.7%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 금융위기(2008~200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증가폭은 수출(16.0%)이 수입(6.5%)보다 크다.

우리나라의 오스트리아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대오스트리아 수출액보다 많아 매년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며, 그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오스트리아 무역수지 적자는 2007년 6,596만 달러에서 2016년 1억 1,517만 달러로 2007년 대비 74.6%, 연평균 6.4%씩 증가했다.

그림 2. 한·오스트리아 농축산물 교역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5) 수출입 순위는 각각 2016년 기준임.

3.1. 오스트리아산 농축산물 수입

오스트리아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돼지고기가 전체의 55.1%를 차지한다. 돼지고기 수입액은 국내 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2011년 8,018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6년 5,884만 달러로 감소했다. 치즈는 최근 수입액이 급증한 품목의 하나로 연평균 109.2%씩 증가했으며, 돼지고기에 이어 두 번째로 수입액이 많다. 이 외에도 조제분유와 유장 등의 축산가공품, 기타 발효주와 맥주 등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12. 오스트리아산 주요 농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최근 3개년 비중(%)	'11~'16년 CAGR(%)
돼지고기	80,182	51,114	38,487	61,344	61,937	58,841	55.1	-6.0
치즈	250	259	209	161	1,572	10,034	3.6	109.2
물	2,830	13,014	7,786	6,368	7,409	8,168	6.6	23.6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2,527	2,342	2,452	2,702	2,904	3,448	2.7	6.4
혼합조제식료품	1,104	1,471	1,700	2,337	2,837	2,287	2.3	15.7
보조사료	213	381	473	1,679	1,520	1,922	1.5	55.3
기타과실	1,117	1,632	1,363	1,230	767	1,411	1.0	4.8
개 사료	400	525	742	953	959	1,309	1.0	26.8
조제분유	212	251	92	0	735	1,192	0.6	41.2
기타당	98	110	667	861	986	966	0.9	58.0
유장	408	142	59	363	228	676	0.4	10.6
사과	6	2	16	349	472	493	0.4	143.2
기타발효주	0	0	0	0	21	477	0.2	612.2
기타비휘발성유지	33	52	77	9	29	437	0.1	68.1
캔디	14	38	200	543	1,491	403	0.7	95.4
면	5,794	2,486	756	0	0	402	0.1	-41.4
유당	0	1	0	0	0	396	0.1	364.0
맥주	126	241	392	530	448	351	0.4	22.7
빵	690	235	201	251	93	343	0.2	-13.0
방향성물질	167	152	152	179	240	258	0.2	9.1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2. 대오스트리아 농축산물 수출

우리나라의 대오스트리아 농축산물 수출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품목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신선농산물 일부와 가공식품을 주로 수출한다. 2016년 주요 품목별 수출액은 2011년뿐만 아니라 전년보다도 대체로 크게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대오스트리아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간장으로 2011년 663달러에서 2016년 41.1만 달러로 연평균 261.7%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 수준이다. 느타리버섯은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어 2016년 11만 8,121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치(11만 5,389만 달러)와 고추(11만 3,153만 달러) 수출액은 연평균 각각 20.8%와 101.2%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13. 대오스트리아 주요 농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최근 3개년 비중(%)	'11~'16년 CAGR(%)
간장	1	54	136	361	463	411	18.6	261.7
인스턴트면	15	97	54	91	144	257	7.4	77.5
비스킷	15	66	64	59	125	186	5.6	64.7
기타 음료	17	67	83	139	103	163	6.1	57.1
기타 파스타	37	40	68	113	113	156	5.7	33.5
느타리버섯	0	0	0	0	2	118	1.8	-
김치	45	70	80	102	96	115	4.7	20.8
고추	3	48	45	63	64	113	3.6	101.2
베이커리 반죽	0	0	0	17	33	72	1.8	-
소주	33	54	51	35	50	70	2.3	16.0
라면	270	194	57	3	4	70	1.2	-23.6
단일과실조제품	0	1	0	1	1	61	1.0	-
물	7	13	3	10	18	44	1.1	45.8
혼합조미료	44	0	0	0	0	43	0.7	-0.4
국수	29	0	79	123	110	40	4.1	6.5
기타과실발효주	3	1	1	2	3	38	0.6	68.3
기타채소	34	38	17	21	28	37	1.3	1.5
빵	0	3	0	2	13	33	0.7	-
고추장	1	3	2	2	5	33	0.6	118.3
배	0	4	87	58	0	33	1.4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 오스트리아의 농업정책⁶⁾

4.1. 개요

오스트리아의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1992년에 제정된 농업법에 기초하며,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규율을 따른다. 공동농업정책의 목적은 1) 실행 가능한 경제적인 방법으로 농가단위의 온전한 농촌 환경 유지, 2) 농업과 타산업의 결합을 통한 여러 가지 소득원 창출과 고용 증진, 3) 시장 지향적인 생산, 가공과 유통의 증진, 4) 다른 경제주체와 비교한 근본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고, 양질의 식품, 원료농산물, 자연자원 등의 공급을 최적화하고, 문화와 관광적 형상을 유지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농의 유지는 오스트리아 농업에서 매우 중요하며, 농업부문에서 기업가적인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는 만큼 직접지불을 통한 비교역적인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 농업 외적인 소득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4.2. 농업 정책의 주요 당사자

연방 농림환경수자원관리부(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 and Water Management)는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틀에서 농업정책의 가장 큰 책임을 진다. 농림환경수자원부관리는 농업 보조, 농업 확대, 교육 및 연구, 유통 조직과 무역 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매년 'Green Report'라는 농업 현황, 농업보조와 농업정책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오스트리아는 9개의 자치주(Laender)로 구성되며, 약 2,000개의 지방자치구역이 있다. 지방자치구역은 실제 농업 지원 수단을 실행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농업·농촌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가족농은 주 단위의 농업회의소(Chambers of Agriculture)에 회원자격으로 참가하며, 연방 농업회의소는 주별 농업회의소의 연합조직이다. 농업회의소는 농가에 대한 자문과 연방 및 주정부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모든 회원은 농업회의소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 대표를 뽑을 권리와 자조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농업회의소는 'Agrar Markt Austria(AMA)'라는 유통조직과 같은 다양한 경제기관과

6) (www.un.org/esa/agenda21/natlinfo/countr/austria/agriculture.pdf)를 참조하여 작성함.

자문과 과학위원회 등을 대표한다. 유럽연합의 ‘유럽전문농업조직위원회(Committee of Professional Agricultural Organisations in Europe, COPA)’의 회원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농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오스트리아 경제정책의 독특한 점은 1957년부터 존재한 4개 주요 이익단체(농업회의소, 경제회의소, 노동회의소, 무역연합)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은 사회적 협력기구인 ‘Sozialpartnerschaft’라는 공공 의사결정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1993년에 설립된 ‘Agrarmarkt Austria(AMA)’는 농업시장 규정을 제정하고 농업 유통을 시행하는 조직이며, 프리미엄과 보조금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유통조직이자 중재기구인 AMA는 공공법률에 따라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기업이지만, 자국의 식품 유통을 증진시키는 임무도 가진다. 특히 유통 증진 업무는 AMA의 자회사인 ‘Agrarmarkt Austria-Marketing GmBH’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자국과 외국을 대상으로 유통과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AMA-Gütezichen’라는 품질인증을 주관한다.

4.3. 주요 사업

(1) 지속가능한 농장 관리(Sustainable Farm Management)

지속가능성 원리는 오스트리아 농업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연자원에 대한 섬세한 관리, 제한적이고 위협적인 물체의 효율적인 대체, 산업 생산에 따른 환경압력의 감축과 재생불가능한 자원 소비의 감축 등을 의미한다. 농업에는 지속가능성의 원리와 모델(Ökoland Österreich; Ecoland Austria) 그리고 다양한 정책수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전업농, 부업농과 이차적 농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기반한다.

최근 삶의 형태와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국토의 80%를 관리하고 양질의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고, 문화와 휴양적 기능을 보존하고, 재생에너지와 자원을 제공하고, 토양, 산림, 깨끗한 물과 공기를 보존하는 등 자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높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2) 농업 보조와 지불(Subsidies & payment for services)

농업인은 양질의 식품 생산과 매력적인 문화적 경관 유지 등 사회에서 없어서 안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농산물 가격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한다.

(3) 농업 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 프로그램

농가의 생산성, 교육 및 능력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농촌개발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부문 개발, 생태 개선,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 농촌개발 등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두 번째 기둥(second-pillar)의 내용을 따른다. 이 프로그램에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자의 직업훈련, 젊은 농업인의 초기정착 지원, 농가의 시설현대화 투자 지원, 농산물 가공 및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품질관리 참여 등이 포함된다.

(4) 농업 교육과 기술지도(Agricultural Education and Extension)

오스트리아의 농업 교육기관과 기술지도 서비스는 지난 10여 년 간 개발되었고, 교육과 상담 방법은 수요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였다. 농업 교육과 상담기관의 핵심 업무는 오스트리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미래 농업과 환경 교육훈련대학(Hochschule für Agrar-und Umweltpädagogik)은 지속가능성을 향한 교육과 훈련 기회의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5) 여성농업인(Austrian farm women)

유로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농업인의 30%가 여성이다. 여성농업인은 농촌에서 노인 돌봄, 자원 봉사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만드는 문화적 활동과 사회적 가치, 그리고 교육과 가족 돌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여성농업인은 농업기업에서 경영책임을 맡기도 하며, 20ha 이상 농가에서 여성 경영주의 비중은 40%에 달한다. 농촌의 구조변화는 여성농업인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이며, 여성농업인은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과 가족농 보호에 기여한다. 농업과 농촌 개발에 여성을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은 농업회의소가 제공하는 교육훈련 및 맞춤형 서비스가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의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한다.

(6) 농가 휴양(Farm Holidays; Urlaub am Bauernhof)

오스트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15,500명의 농가가 17만 개의 객실을 제공한다. 이는 농가의 8%가 여행 편의를 제공하지만, 여행기업 1/5과 오스트리아 숙박 공급량 1/7을

대표함을 의미한다.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2/3는 대부분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광에서 'Farm Holidays'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위치를 차지한다. 시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Farm Holidays'를 통한 관광객의 1일 지출은 1.0~1.2 십억 유로에 달하고 이는 농촌 지역에서 2만 3,000명에 달하는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낸다.

(7) 농장 학교(School on the Farm; Schule am Bauernhof)

농장 학교는 농업인이 교사와 학생에게 농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2005/06년에 약 9만 명의 학생이 반나절 또는 5일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장 학교를 방문하였다. 농장 학교의 목적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농장을 삶과 자연을 배우는 장소로 인식시키고 둘째, 농업, 농산물, 농촌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셋째, 농업, 식품생산과 환경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것이다.

(8) 농촌 청년(Rural Youth)

2003년부터 농촌 청년은 정부와 연합하여 지속가능한 행동의식을 창조하는데 노력한다. 매년 청년들이 제안한 사전주제가 정해지고, 이러한 자료들은 'priority weekend' 뿐만 아니라 '4er Cup'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농촌 청년 선발대회의 자료로 이용된다. '4er Cup'은 특정 과업을 완수하고 질문에 답하는 팀 선발대회이다. 2004년 이후 약 6,000여명의 젊은이가 'priority weekend'에 참여했고, 600여개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의 초점은 개인의 삶에서 지속가능한 전략을 의식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으며, 여러 분야의 기초지식과 지속가능한 개념을 만드는 것이 오스트리아 농촌 청년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9)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오스트리아는 증기 보일러를 위한 청정공기법, 스모그 경보 및 오존 보호법, 채광법, 비료법, 임업법, 물권리법, 폐기물처리법, 화학법, 산업코드법, 토양보호법 등 수많은 규정을 통해 토지를 보호한다. 토지는 늘리거나 재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의 요구와 책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농촌개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환경 프로그램이며, 이는 의무 토양검사의 규정을 포함한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토양비옥도를 보증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농업-환경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양 보호작물 재배에 대한 보조금도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0) 농업 생산체계 다양화

오스트리아에서 농산물 직거래와 지역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농가의 21%가 'The Farmers Delicacies(농업인의 별미)'라는 농산물 직거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농장입구 판매(Farm-gate sale)라는 농업인 상점이 가장 활성화된 농산물 직거래 수단이다. 'Green Stock Exchanges'라는 곳은 농산물 직거래 담당자와 농업인 상점, 농산물 정보 등을 알려준다.

(11) 유기농업과 GM 정책

최근 10여 년 동안 오스트리아 농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경향은 환경의식의 개발이다. 이는 1995년 EU가입 이후 농업-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농가의 70%와 농경지의 90%가 농업-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농업인은 환경과 생태계의 보호에 큰 기여를 한다. 유기농업은 현재까지 생태적인 오스트리아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약 14%의 농업인이 유기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유기농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유기농업에 대한 보조금이다. 오스트리아는 1991년부터 유기농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EU에 가입한 이후로는 더 많은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에 유기농가에게 최소 150유로가 지급되었는데, 그중 절반은 EU 재원, 나머지는 6:4의 비율로 연방 정부와 지방정부 재원이다. 2005년에는 2만 여명에게 유기농업 직불금을 지급하였고, 지원 면적은 36만 ha에 달한다.

둘째, 거대 유통 기업의 참여다. 거대 유통 기업을 통해 특정한 유기농 전문매장이 아니라도 소비자가 일반 매장에서 유기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 유기농업 발달에 큰 기여를 한다.

셋째, 오스트리아 유기농업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의 환경의식이다. 소비자들이 환경에 기여하기 원하고 유기농산물의 높은 가격을 수용할 준비가 된 점이 유통기업으로 하여금 유기농산물을 취급하게 된 배경이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GMO농업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GMO 농산물을 의도적으로 유통시키지 않고 있다. 다만 EU 차원에서 인증을 받은 일부 품

목(옥수수 3품종, 유채 1품목)에 대해서는 과학적 실험농장의 재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어떤 GMO농산물도 재배되거나 유통되지 않는다.

4.4. 최근 동향 및 이슈

오스트리아는 농업이나 임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의 사용과 같은 야심찬 계획을 설정했다. 이 부분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확장되었고, 농업생산의 바이오매스를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과 같은 연료물질로 만들 수 있는 다수의 시설이 설치되었다. 2007년부터는 밀, 옥수수와 사탕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되고 있고, 이를 위해 농업인이 농장을 좋은 농업과 환경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의 무준수(cross compliance)를 규제한다. 농산물의 비식품 이용은 균형을 잘 맞춰야 하고 식량안보는 에너지 부문의 자원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2016년 5월 치러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2월 4일 대선을 새롭게 치렀다. 대선후보 노베르트 호퍼는 오스트리아의 EU 탈퇴 국민투표를 제안하였으나, 선거 패배로 EU 탈퇴 논의는 잠잠해졌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EU 탈퇴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는다. 최근 갈렌대학 경제학과 크리스티안 키슈닉(Christian Keuschnigg) 교수가 EU 탈퇴의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EU 탈퇴는 대외교역, 외국인 투자유치, 노동시장, 유로화 사용 중지와 관련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으로의 복귀를 통해 부정적 영향이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시사점

오스트리아는 국토면적 대비 농지면적 비중이 33%(2014년 기준)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지만 경제적 활동을 위한 경지면적 비중은 16%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⁷⁾ 오스트리아의 농업 GDP는 55억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농가당 GDP는 1.7배 높아 우리나라보다 규모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 농업의 규모화는 대부분 일부 곡물과 과일·채소 등 농산물(96만 ha, 경지면적의 71%)에 집중되었고 비교적 단순한 농업구조를 보인다. 나머지 면적은 축산업을 위한 면적으로 추정되며, 축산업 또한 젖소와 돼지 사육이 주류를 이루는 단순한

7) 2014년 기준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의 경지면적(arable land)은 각각 135.1만 ha와 147.6만 ha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음.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농축산업 구조는 대외교역에도 영향을 미쳐 비교적 단순한 교역형태의 특징을 보인다. 국가별 대외교역은 독일과 이탈리아에 집중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독일과의 정치·경제적 결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EU라는 틀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⁸⁾

오스트리아의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EU 공동농업정책의 틀에서 이루어지지만, 자체 농정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회의소를 통한 가족농의 정책참여,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관광 및 체험 농장, 친환경 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 등을 위해 이해당사자의 합의와 공동노력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농업의 경쟁력을 키운다.

오스트리아는 기본적으로 인구나 GDP 측면에서 시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소비 성향과 구매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유럽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서구와 동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또한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다품종 소량구매를 원하는 시장 특성과 현지 직접 진출보다는 현지 유통업체를 통한 시장 진입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대오스트리아 수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오스트리아는 정치적으로 EU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FTA 발효 시 EU회원국의 자격으로 상대국의 관세를 철폐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와 투자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참고문헌

UN DESA(www.un.org/esa/agenda21/natlinfo/countr/austria/agriculture.pdf)

참고사이트

세계은행(www.worldbank.org)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www.fao.org)

두산백과(www.doopedia.co.kr)

CIA World Factbook(www.cia.gov)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ktspi.or.kr)